

발표 자료 템플릿의 경우, 너무 같은 것만 사용하는 것보단 여러가지 해보는 것이 좋다. 여러 자료를 만들어 봐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.

지난 주 러닝 커브를 가져왔으면, 이번 주와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모델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.

어떤 것이 변했는지에 대해 변경된 부분(예를 들면, 하이퍼파라미터 자료 부분 또는 모델 값)에 대해 bold 처리해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지피티로 코드 작성하더라도 print로 전체적으로 코드를 찍어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코드 파악 겸 점검

현재 정규화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데, 종목 별로 정규화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.

비교할 땐 어떤 부분 (예를 들면 모델 쪽)을 바꿨더니 성능이 좋아진 게 보였다. 이후에 어떤 걸 조절해서 Validation Loss를 조절해보겠다. <- 이런 코멘트 넣는 것도 좋을 듯하다.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코멘트

저장한 모델을 이용해서 지난 주 모델 시각화와 이번 주 모델 시각화 비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
발표 때 말한 부분에서, 실험은 Shuffle False 때처럼 요동치지 않고 부드럽게 보이는 게 안정적이라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, Test Loss가 Shuffle True가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험은 Shuffle True로 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았을 듯

현재 100 epoch도 좋지만 200, 300 epoch으로 해서 overfitting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발표 자료에 Valid Loss가 제일 낮았던 epoch이 몇인지, Loss 값 정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. 또한 사용한 종목명 10가지로 자료에 넣으면 좋을 듯하다.